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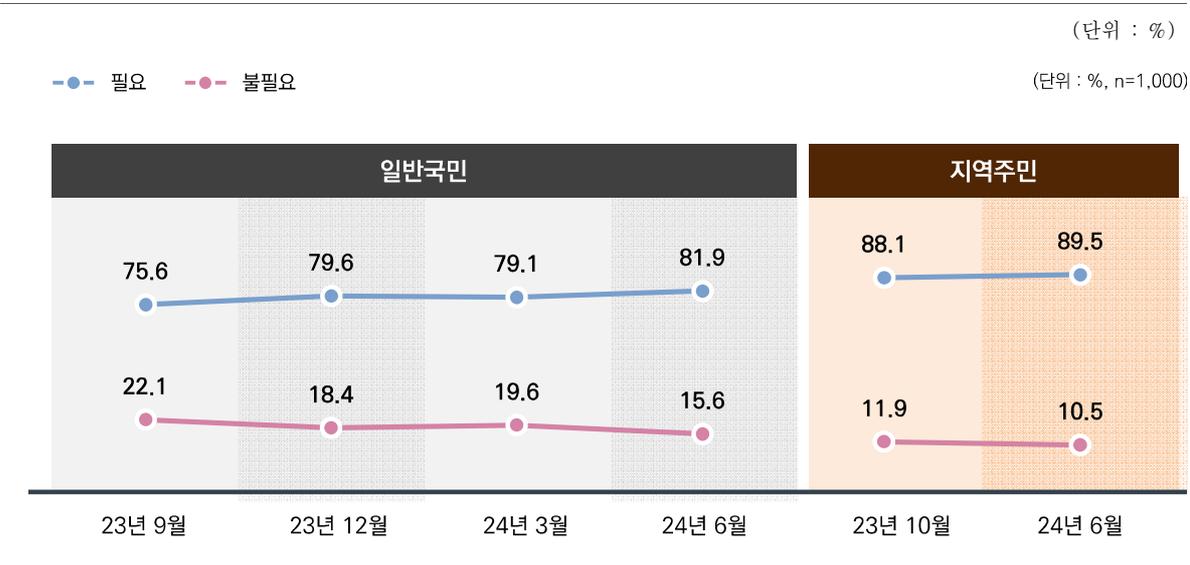
www.keia.or.kr		www.e-policy.or.kr	
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<small>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Agency</small>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h2 style="margin: 0;">2024. 8. 14 (화)</h2>		
문의	사업 정보분석팀 김희영 과장(02-2191-1441) 언론 미디어소통팀 김경화 팀장(02-2191-1420)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일반 국민 5명 중 4명,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

-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, 2024년 상반기 「에너지 국민인식조사」 결과 발표 -

-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(대표이사 최성광, 이하 재단)은 「2024년 상반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」 결과를 8월 14일 발표했다.
 - 재단은 여론조사기관 (주)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, 6월 두 차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,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을 통한 1:1 전화조사와 6월 5개 원전 소재 지역 만 18세 이상 주민 1,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.
 - * 표본 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p, 전화 조사 응답률 1차 10.8% 2차 7.6%
- 조사 결과, 일반 국민 5명 중 4명이, 원전 소재 지역민의 대다수가 ‘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’ 고 답하였다. 2023년 조사 이후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.
 - * 일반 국민 : ‘필요하다’ 81.9%, ‘필요하지 않다’ 15.6%
 - * 원전 지역민 : ‘필요하다’ 89.5%, ‘필요하지 않다’ 10.5%

[원자력발전 필요성 추이]



□ 원전 안전성에 대하여 일반 국민 응답자의 70.2%가 ‘안전하다’ 고 답했으며, 65.7%가 ‘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성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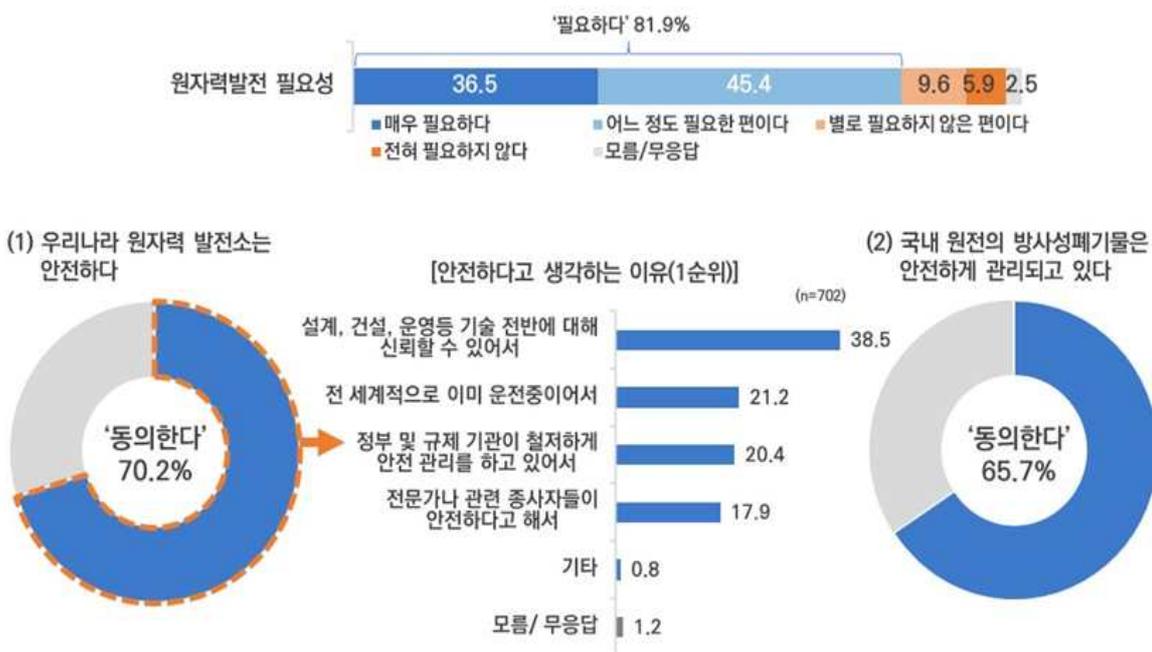
○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‘원전 설계·건설·운영 등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’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, 불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‘예상 외의 사고가 우려되어서’가 1순위로 나타났다.

* 안전성 인식 이유 : ① ‘설계·건설·운영 등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’(38.5%), ② ‘전 세계적인 운영 사례’(21.2%), ③ ‘정부 및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’(20.4%), ④ ‘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하다고 해서’(17.9%) 순

* 불안전성 인식 이유 : ① ‘예상외 사고 우려’(57.9%), ② ‘안전관리 기술 부족’(20.2%), ③ ‘연구자 및 기술자의 운영오류 우려’(13.6%), ④ ‘언론·온라인매체·영화 등에서 위험하다고 해서’(5.8%) 순

[원자력발전 필요성 및 안전성 인식]

(단위 : %)



□ 국내 원전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국민 10명 중 6명이 ‘국내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’고 답했다.

* 원전 계속운전 의견 : ‘찬성한다’ 69.8%, ‘반대한다’ 27.8%, ‘모름/무응답’ 2.4%

* 원자력 발전량 증감 의견 : ‘늘려야 한다’ 59.3%, ‘줄여야 한다’ 35.4%, ‘모름/무응답’ 5.3%

□ 거주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, ‘반대할 것’이라는 응답이 52.8%로, ‘찬성할 것’ 45.1% 보다 높게 나타났다.

○ 반대 이유는 ‘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험 우려’가 1순위로, 찬성 응답자의 경우 ‘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’는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났다.

* 찬성 이유 : ① ‘에너지자립을 위해 필요’(54.2%), ② ‘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’(21.9%), ③ ‘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’(13.7%), ④ ‘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’(5.8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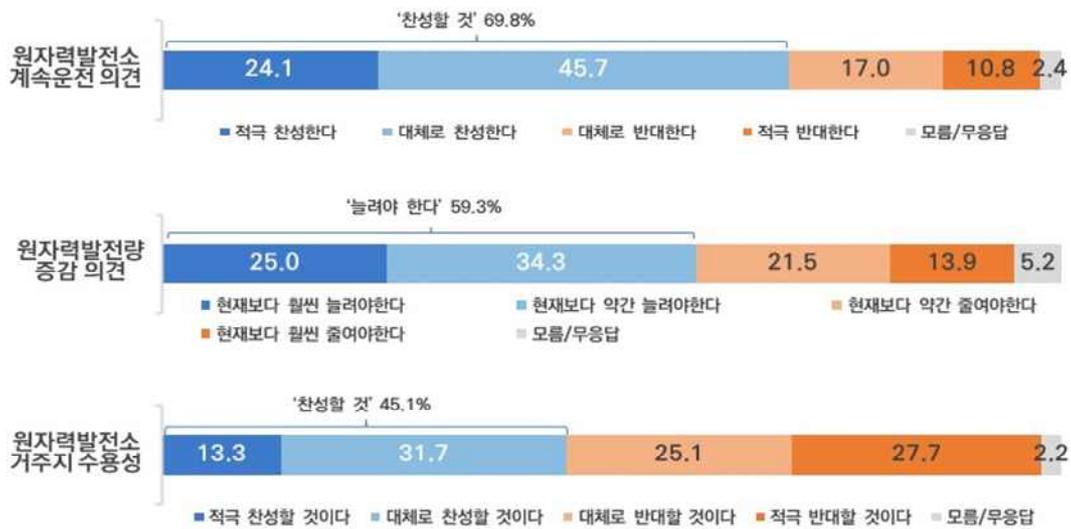
* 반대 이유 : ① 방사능 노출 위험 우려(59.2%), ② ‘원전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’(24.4%), ③ ‘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 가치 하락우려’(10.2%), ④ ‘생업에 대한 피해 우려’(3.4%) 순

□ 응답자의 대다수인 91.1%가 ‘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다’고 응답하였으나,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 법안 미제정 인지 인식은 16.3%로 나타났다.

○ 적절한 보상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, 거주하는 지역에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한다면 ‘찬성할 것이다’는 의견이 54.1%로 나타났다.

[원자력발전 주요 현안 관련 태도]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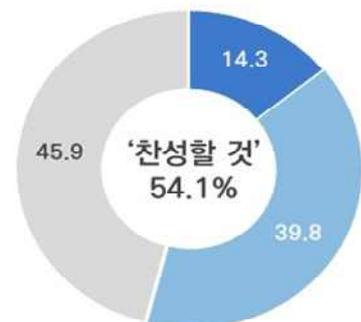
[방폐물 처분시설 시급성]



[방폐물특별법 발의 후 미제정 인지]



[방폐물 처분시설 거주지 수용성]



□ 에너지 이용 관련 중요도에서는 일반국민은 ‘환경성’ (46.9%)이 원전 소재 지역민의 경우는 ‘에너지안보’ (58.0%)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일반 국민 : ‘환경성’ 46.9%, ‘에너지안보’ 29.0%, ‘경제성’ 22.7% 순

* 원전 지역민 : ‘에너지안보’ 58.0%, ‘경제성’ 21.5%, ‘환경성’ 20.5% 순

[에너지 이용 관련 중요도(1순위 기준)]



□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 노동석 센터장은 “지속적인 에너지 국민인식조사를 대국민 에너지 소통에 활용 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. 2024년 「에너지 국민인식조사」 결과 요약 및 설문지. 끝.

〈붙임1〉 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요약

1 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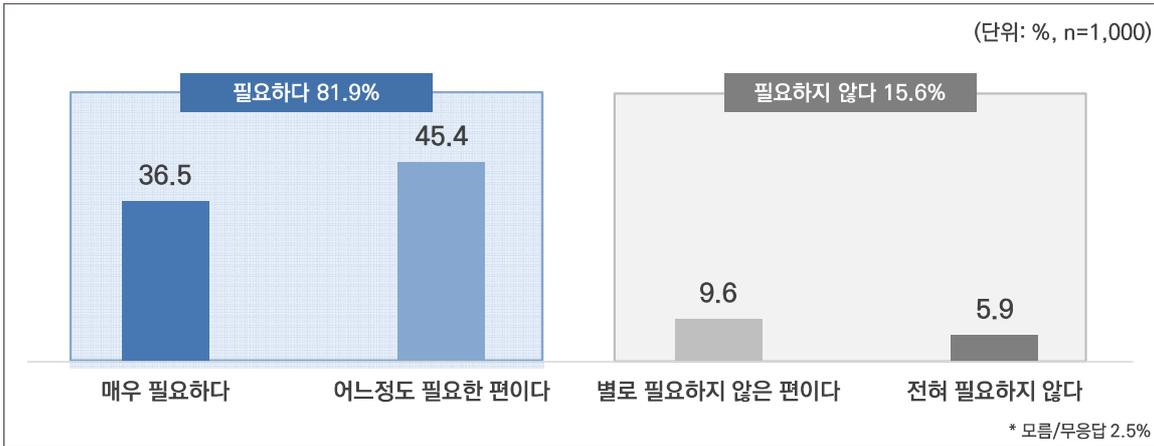
- (조사목적) 주요 에너지·원자력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에너지정책 국민소통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
- (조사기간) 1차 : 2024년 3월 28일(목) ~ 31일(일) / 4일간
2차 : 2024년 6월 2일(일) ~ 5일(수) / 4일간
- (조사대상) 만 18세 이상 전국 (17개 광역시도) 1,000명 (95% ±3.1%p)
- (실사기관) (주)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
- (방법) 면접원을 통한 전화조사 (응답율 1차: 10.8% / 2차: 7.6%)
- (조사내용) 4개 분야, 총 10개 문항(응답자 특성 제외)

조사내용	세부 문항 내용
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지 여부	· 원자력발전 항목별 인지 여부
에너지 이용 관련 인식	· 에너지 요소별 중요성 인식
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	· 원자력 발전 필요성 인식 · 원전/방사성폐기물 안전성 인식 · 원전 안전성/불안정성 인식 이유
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	· 원전 계속운전 의견 · 원자력발전량 증감 의견 · 거주지 원전 수용성 및 이유
원자력 현안 관련 인식	·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시급성 ·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발의 후 미제정 인지 ·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거주지 수용성
응답자 특성	· 거주지역, 연령, 성별, 직업

② 주요 결과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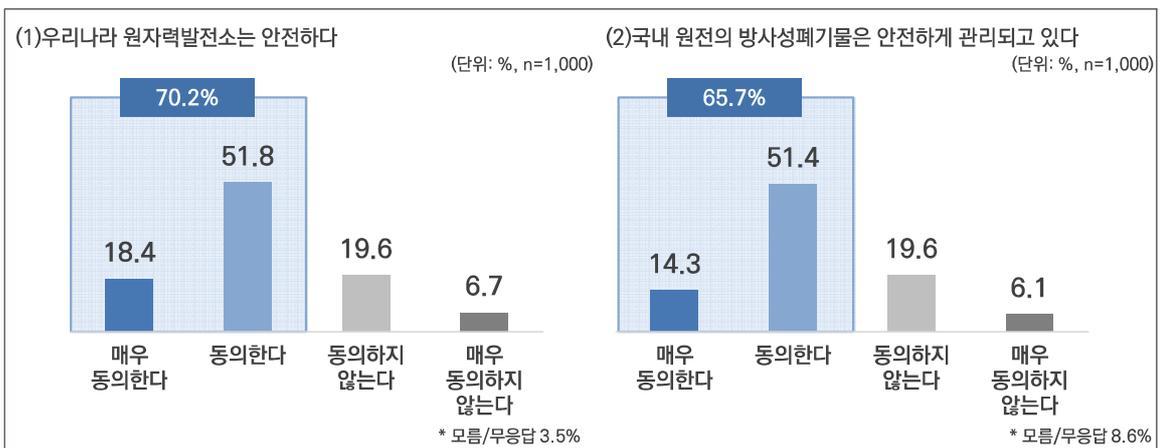
- ①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‘필요하다’ 81.9%(매우 36.5% +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45.4%), ‘필요하지 않다’ 15.6%전혀 5.9% +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9.6%)로 나타남

[원자력발전 필요성 인식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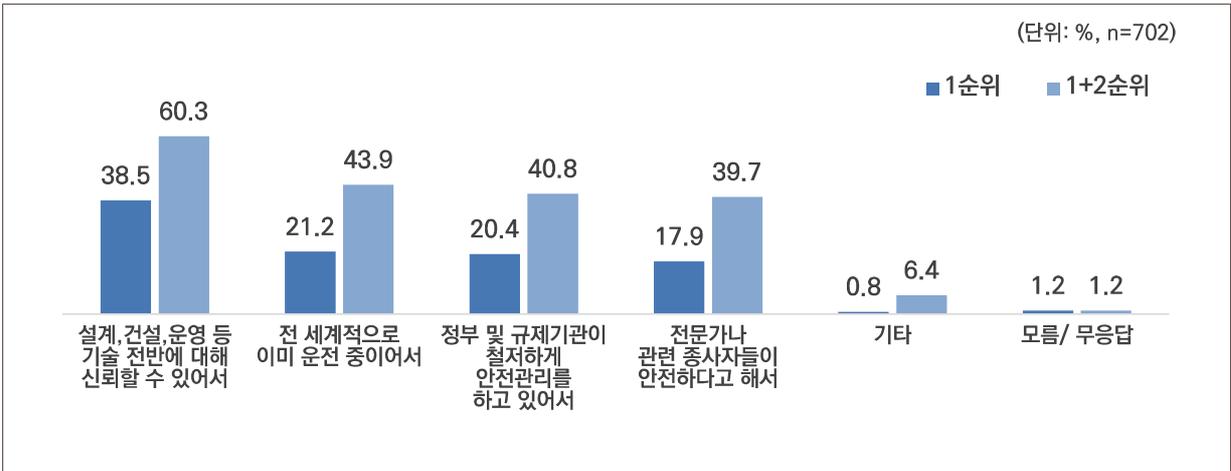
- ② “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” 는 진술에 대해 70.2%(매우 18.4% + 동의한다 51.8%)가 ‘동의’ 하는 것으로 나타남. “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” 에 대해서는 ‘동의한다’ 65.7%(매우 14.3% + 동의한다 51.4%)로 나타남

[원자력발전 안전성 인식]



-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(n=702)로는 ‘설계, 건설 운영 등 기술 전반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서’ (38.5%)가 1순위로,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(n=263)로는 ‘예상외의 사고가 우려되어서’ 가 57.9%로 1순위로 나타남

[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인식 이유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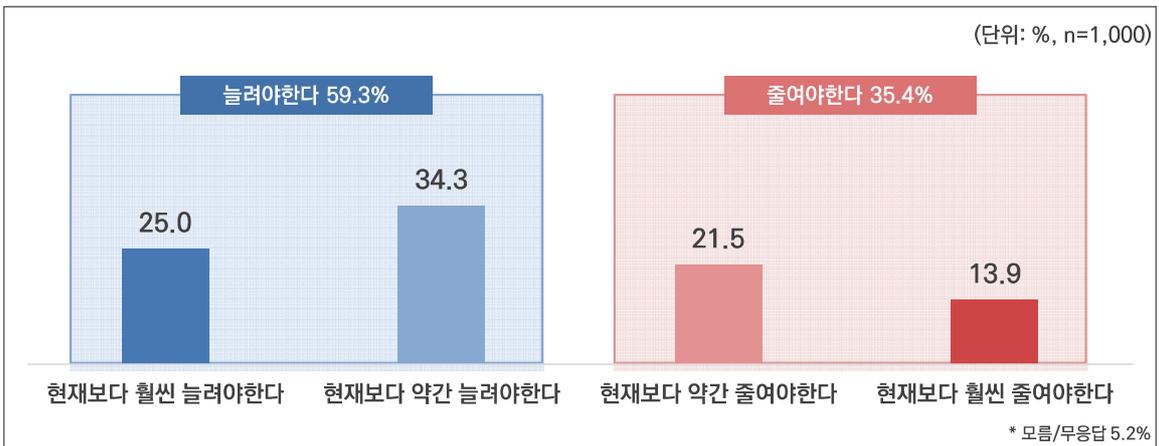


[원자력발전소 불안전성 인식 이유]



③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 발전량 증감에 대해서는 ‘늘려야 한다’는 59.3%(현재보다 훨씬 25.0% + 현재보다 약간 늘려야 34.3%), ‘줄여야 한다’는 35.4%(현재보다 훨씬 13.9% + 현재보다 약간 줄여야 21.59%)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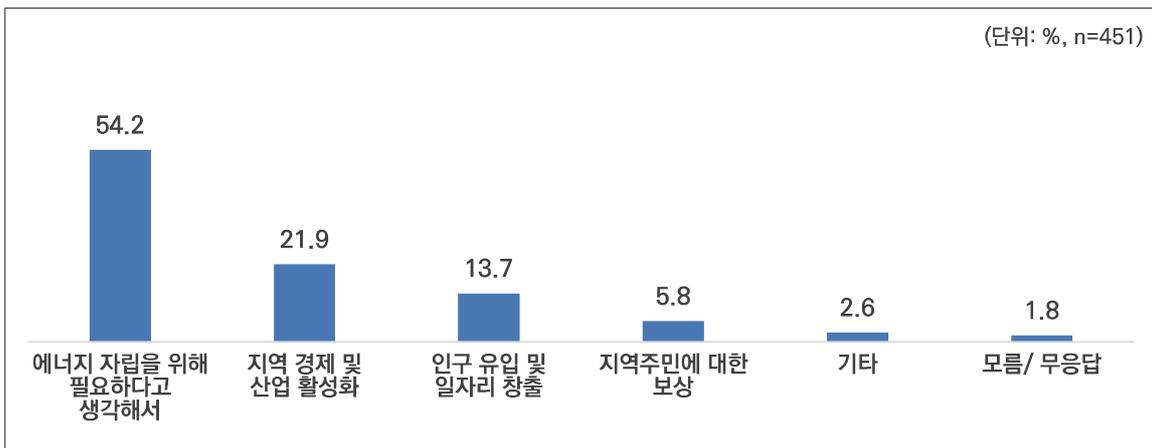
[원자력 발전량 증감 의견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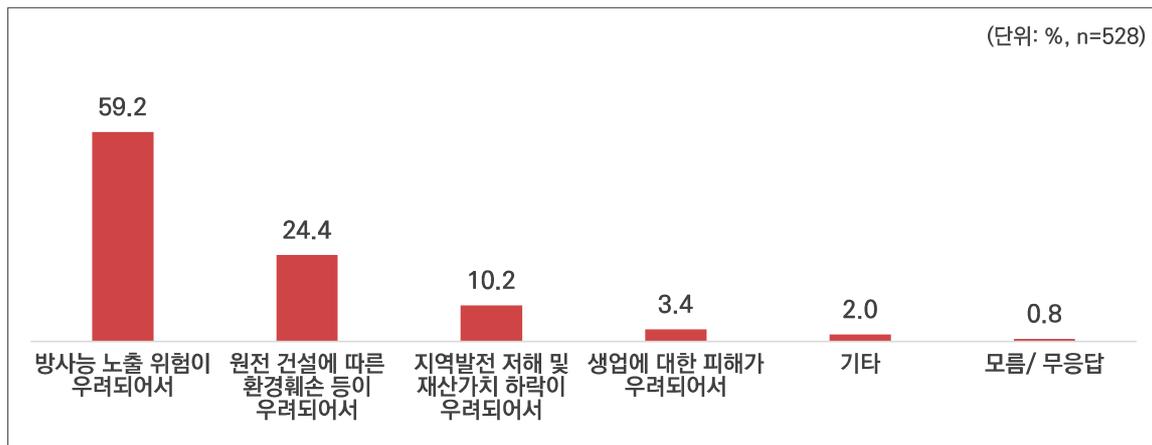
④ 거주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, ‘반대할 것’이라는 응답이 52.8%(적극 27.7% + 대체로 반대 25.1%)로, ‘찬성할 것’ 45.1%(적극 13.3% + 대체로 찬성 31.7)보다 7.7% 높게 나타남

- 거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이유(n=451)에 대해서는 ‘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’가 54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반대하는 이유(n=528)로는 ‘방사능 노출 위험이 우려되어서’가 59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[원자력발전소 거주지 수용 찬성 이유]



[원자력발전소 거주지 수용 반대 이유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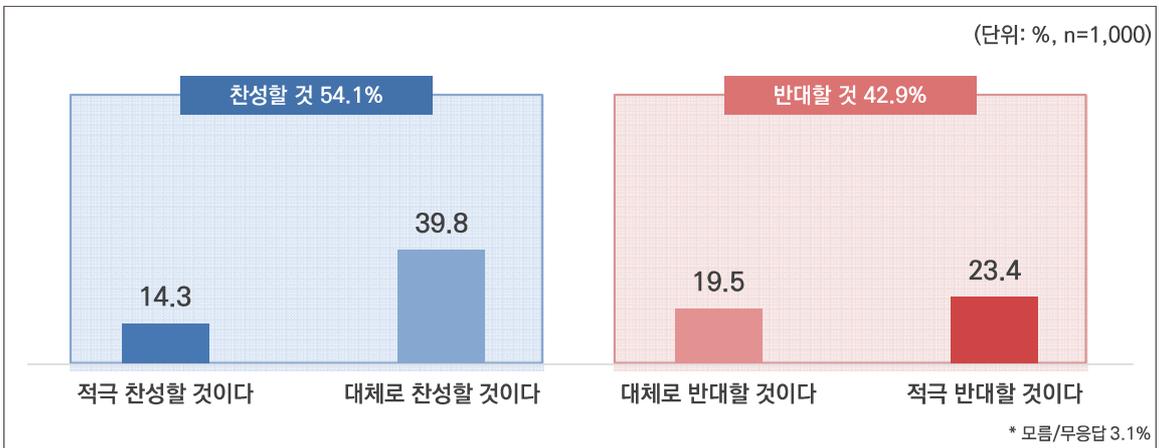
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시급성에 있어, 국민의 대다수인 91.1% (매우 62.4% + 약간 시급하다 28.7%)가 ‘시급하다’고 응답하였으며,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 법안 미제정 인지 여부는 16.3%로 나타났다.

- 적절한 보상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, 거주하는 지역에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한다면 ‘찬성할 것이다’는 의견이 54.1%로 나타났다.

[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시급성 인식 및 특별법안 인지여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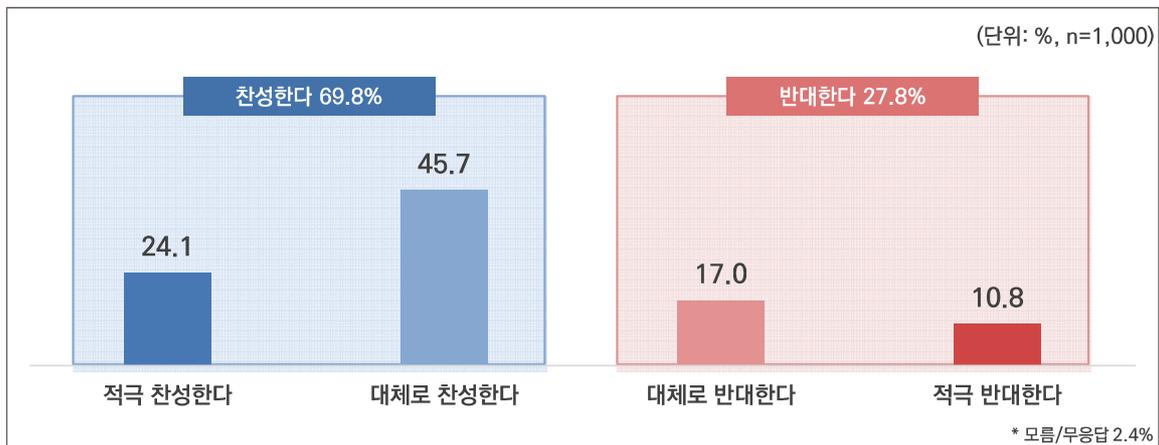


[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거주지 수용]



⑥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에 대해 ‘찬성한다’ 는 응답은 69.8%(적극 24.1% + 대체로 찬성한다 45.7%)로, ‘반대한다’ 27.8%(적극 10.8% + 대체로 반대한다 17.0%)로 나타남

[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의견]



2024. 3. 6월

2024 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(일반국민)

ID

안녕하십니까?

코리아리서치에서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의뢰를 받아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본 조사는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,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.

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2024년 3월



SQ1. 성별	① 남자 ② 여자
SQ2. 연령	()세 (조사일 기준) 만18세 미만 면접중단 ① 만18~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
SQ3. 지역	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

I.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지

문1. 선생님께서는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?

내용	잘 알고 있다	어느 정도 알고 있다	잘 모르는 편이다	전혀 모른다	(읽지 마시오) 모름/무응답
1-1. 신규 원전 건설	①	②	③	④	⑨
1-2. 계속 운전	①	②	③	④	⑨
1-3. 사용후핵연료 처리	①	②	③	④	⑨

II. 에너지 일반 인식

[에너지 이용 관련 인식]

문2. 에너지 선택과 이용에 관련된 아래 요소 중,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.

(보기 1-3 Rotation)

1순위	<input type="text"/>	2순위	<input type="text"/>	3순위	<input type="text"/>
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- ① 에너지안보 -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② 경제성 - 가격 접근성
 ③ 환경성 -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
- ⑨ (읽지 마시오) 모름/무응답

DQ. 응답자 특성

DQ1.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?

- ① 농업/임업/어업
- ② 자영업(상업, 소규모 장사, 개인택시운전사 등)
- ③ 판매/영업/서비스직(상점 점원, 세일즈맨, 방문 판매원, 미용사 등)
- ④ 생산/기능/노무직(제조업 생산직, 현장직업, 일용노무직, 청소관리, 경비원 등)
- ⑤ 사무/관리/전문직(차장이하 사무직, 초중고 교사, 6급 이하 공무원)
- ⑥ 주부
- ⑦ 학생
- ⑧ 무직/퇴직
- ⑨ 기타()

♣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♣